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보봉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세수 여든의 나이에도 불교 범패음악과 우리민요 기악을 적절히 조화시킨 찬불가로 회향하겠다는 보봉 스님.

“간절히 원하면 안 되는게 없어요”

금방 연두색 물감이 푹푹 떨어질 것 같은 신록의 계절 5월에 기자가 찾은 곳은 서울 종로구 육인동에 위치한 범해사 포교원 흥법원이다. 오랜시간의 흔적처럼 색이 바랜 한안색 3층 건물의 도심포교당이다. 이곳에는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스님(80)이 주석하고 있다.

스님이 주지로 있는 또하나의 사찰인 공기 좋고 산세좋은 인왕산 범해사보다 이곳 흥법원에 주로 머무는 이유는 오직 대중포교 때문이다. 스님은 일평생 “도심 포교”를 화두삼아 정진해 왔다.

범해사에 들어서자 친근감이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3년전 심장 수술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보봉 스님이 절을 찾은 신도에게 신행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모든게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지금 사는데 힘들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어두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밤이니까 참고 인내하며 내 마음뒀는 일에 전념해야 돼. 오직 마음공부 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

상담 내용을 옆에서 귀담담 한 뒤 보봉 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보봉 스님 방에는 목탁, 법고부터 키보드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꽂 들어차 있었다. 마치 음악 작업실 같았다.

방 한쪽에 서 있는 칠판에는 음계와 가사를 수없이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저건 다 몇 년전 찬불가 만들었을 때 했던 짓들이야. 요즘은 몇 년전 앞뒀던 뇌졸중 후유증으로 손발이 불편해 작곡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찬불가 대중화에 평생을 전력해온 스님의 이력을 미리 알고 간 터라 불교음악에 대한 스님의 생각이 더욱 궁금했다.

“대중이 이해 못하는 범패는 죽은 불교 음악이야.



보봉 스님이 찬불가 작곡을 위해 키보드를 연주하고 있다.



태고종 중서부 총무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보봉 스님.

그래서 죽기전에 범패와 우리 전통 기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찬불가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스님은 범패가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재(齋)의 의식에서 전문 범패승만이 부르는 음악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범패는 너무 어려워 스님들도 배우기 힘들어 수료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범패를 듣는 신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요를 만들자는 생각이 20년전부터 스님은 길을 걸을 때나 잠잘 때, 일할 때 등 시간 날 때마다 일념으로 찬불가 작곡에 매진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끝에 스님은 20여년 동안 수십곡을 선보여 음반으로 내놓았다. 또한 61세(1988년)가 되던 해엔 해연 그중에서 10여곡을 뽑아 세종문화회관에서 불교음악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스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했다. 스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요즘은 몸이 불편해 작곡은 못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아, 스님들의 일상이라는게 다 똑같지 뭐.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공양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야.”

스님과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지켜보니 보봉 스님의 오후 일과는 다른 스님들과 약간 달랐다.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고종 중서부 총무원장의 소임을 맡은 탓에 150여개의 관할 사찰에서 밀려오는 중무 행정의 결례권을 처리하는데 오후를 다 소진했다. 불편한 몸에도 중무 행정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요즘 보봉 스님이 가장 정성을 쏟는 것은 10월에 준공될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이다. 원로스님으로서 종단의 큰 숙원사업을 위해 본말사 스님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보봉 스님은 오직 포교 일념으로 수행해 왔다. 1978년 미국 뉴욕에 한국 사찰로는 처음으로 전통 사찰 세우고 20여년간 해외포교에 주력했다. 그때 일화 한토막을 들려 주었다. 그러면서 ‘공즉통’이라고 하시며 살면서 간절히 원하면 안되는게 없다는 조언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가정집 차고를 법당으로 개조해서 전통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미주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니 교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었던 게지요. 자동차가 법당 옆 주차장에 즐비하니 주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서까지 갈 정도였으니까요.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법당에 올 수 없다는 생각에 밤새 고민을 했어요. 다음날 인근 햄버거 집을 찾아가 주인을 불러놓고 매주 신도들 점심으로 당신님에게 햄버거를 구입해 줄 테니 너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잠시후 미국인 주인이 “Yes”를 하더니 몇 개월이 지난뒤 어느 순간 똑같은 불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전통사는 500여명이 들어가는 법당을 갖춘 뉴욕한복판의 큰 사찰이 됐지요.”

과거를 회상하며 또렷모reet한 말투로 말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평생을 몸부처 온 대중 포교에 대한 강한 원력을 들을 수 있었다.

글=김주일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30년전 뉴욕 한복판에 사찰 건립

보봉 스님은 192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1945년 일본 중앙 대학 음악과 2년을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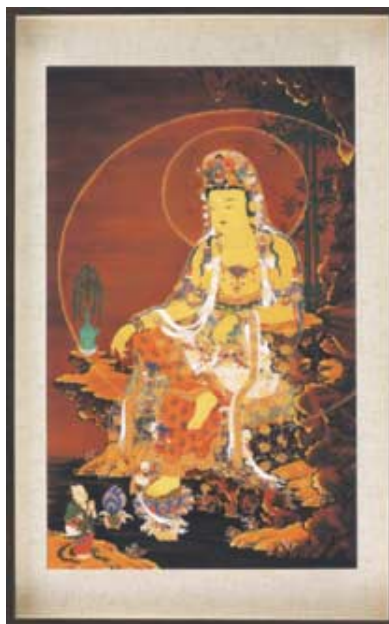
72년 서울 사간동 법문사에서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을 은사로 건당해, 75년 신촌 불원사에서 목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8년 불교전문교육원과 불교통신교육원 대학, 96년 스타벅스 피리페나대학 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봉 스님은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 30여년간 수십곡을 직접 작곡해 음반으로 만들어 수만개를 전국에 보급하기도 했다.

또한 1978년 당시 포교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미국 뉴욕에 전통사를 세워 2000년까지 주석하며 해외포교에 진력했다.

현재는 종로 범해사 주지직과 함께 태고종 서울 중서부 총무원장,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30년 가까이 찬불가 대중화 위한 작곡 매진
처소엔 법고·키보드 등 각종 악기 꽂 들어차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달마도보다 더 인기!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풍과 고의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부귀대복을 주고자하는 지태로운 영현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현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 일도 안되어 수월영이 원하는 명료대학과, 사법고시를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영현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배하기만 하면 재물이 솟아나고, 중생에서 소생하고, 위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복으로 해결되는 등 화려한 영험이 나타나는 화재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인 신성 金成鎭 화백께서 3년간 기도하고 영현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탄화지재로 조도 완화와 배탈린 화시를 사용하 수백년 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관동종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복귀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현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현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종서와 차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원인관이 있다.

영현이 나타나는 임소문이 퍼지면서 서을 조개사 앞에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함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약사스래전 수월관음도 병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현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88cm

상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현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맨드레이크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손잡이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25000 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5 이상하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덕처를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도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회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악재를 화를 미리 쫓으며 영현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양도 모르는 영현세상, 남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눈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결혼관, 직장인, 학생,

옴마니반매홈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서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나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 이뤄!

옴마니 반매홈, 육자대명왕전언은 쇠가도 니 부처님께서 시미국 가디담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할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매홈 육자대명왕전언을 살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일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광에 일찍이 범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얻으리라는 뜻에서 7000원의 축원기도와 영현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매홈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슬러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된 한 옴마니 반매홈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경”을 넣었으며,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배”문양을 넣어 결성되고 다닐때 영현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쇠가도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쁨이며 전화로 신현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 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으로 신용카드도 전용구입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5 이상하

바른 생각이 바로 보게 한다



보봉 스님은 "참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팔정도(八正道)를 충실히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보봉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이번 5월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의미를 어느때보다도 소중히 되새겨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으로 돌아가,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팔정도(八正道)'를 주제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 불자들은 법회때나 불교교양대학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정도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등이라고 단언만 나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오신 참뜻을 되새기자는 뜻에서 오늘은 팔정도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마땅히 머무를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뜻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6조 혜능(慧能) 스님이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출연히 깨달았다고 하여, 선종에서 핵심적인 문구로서 매우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라고 해석되는데, 달리 표현하면 '일체의 것에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공허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마음을 쓰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지에 오려면야말로 '평등즉차별' '차별즉평등'이라는 중도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도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8가지로 나누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초기교단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행위의 규범이자 실천 덕목입니다. 여기서 정도란 바른길인데, 이 길은 지상의 길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가느냐 하는 삶의 길입니다. 바로 이런 바른 삶의 길을 도(道)라고 합니다.

길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그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 제 각각의 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공통된 삶의 바른길은 무엇일까요? 중도의 완전한 수행법인 팔정도입니다. 이것은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수행의 길'이란 뜻이기도 하지요.

물론 여덟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중에서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를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우선 정견은 바른 견해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팔정도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설명할 때 특히 부부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생활도 정견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부부끼리도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한쪽면만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쁜면만 보기보다는 좋은면도 분명히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하는 정사유(正思惟)가 진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함께 몸도 건강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사유를 설명하는데 왜 건강얘기가 나오냐고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 즉 바른 생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불자들에게 법회때마다 메모지나 수첩에 팔정도의 핵심 내용만 간략히 요약해 항상 지갑에 넣어두며 수시로 꺼내 읽으라고 권합니다. 직장이나 가정 등 일상생활을 할때마다 마감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 팔정도의 내용을 꺼내 읽으면서 마음과 행동을 가다듬다보면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참된 불자라면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잘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體)와 용(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와 용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소홀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회양종을 왕중천 법장 스님과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측천무후(則天武后)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체와 용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요. 법장 스님은 공의 금사자상을 가리키며 측천무후에게 "금(體)이란 본래 자성(自性)이 없으므로 기술자가 교묘하게 가공하면 이것을 연으로 하여 금사자(用)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라고 불교교리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장 스님은 금이 본체이고 금사자의 형상은 현상이므로 금이 없으면 금사자도 없으니 금은 곧 금사자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체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일체 차별상의 근원이 되는 절대평등의 본체로서 일체 만물의 불변상주하는 본 모양을 가리키며, 용이란 체를 근거로 하여 인연에 따라 일체 차별상이 현상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와 용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라는 이사무어(理事無碍)의 법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잘 음미하면서 팔정도를 생활화한다면 여러 불자들의 삶도 5월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소담스러워 질 것입니다.

정리=김주원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4>



지상에서 사리불이 한 마지막 일

"내 어머니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 사리불이 돌아왔으니 아들이 쓰던 예전의 방을 깨끗하게 치워 주십시오 전해주겠느냐?"

늙은 사리불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리불의 집안은 계급도 높고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매우 영리한 여인이었는데 사리불을 회일하였을 때에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 저절로 해박해졌고 지혜로워 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큰아들 사리불이 친구 목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지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 대한 소문은 바람결에 간간히 실려 왔지만 고향집과는 연락을 끊고 살아서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지내어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5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얼핏 보면 금의환향이었지만 실은 병이 깊어진 늙은 아들이 마지막 숙제를 마치고 길고긴 삶을 내려놓을 임종의 자리를 찾아온 귀환이었습니다. 아들의 방을 손수 청소하던 어머니의 손이 자

님께 대해 금금해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들에게 절을 했고, 그 아들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자신의 스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석가 모니라는 분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은 그런 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서 부처님이 어떤 덕을 지닌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급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길고긴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아, 그토록 훌륭하고 실제적인 행복의 길을 왜 이제야 가르쳐 주는 것이냐? 왜 진자 이렇게 설명해주려 하지 않았냐?"

사리불은 더할 수 없이 커다란 행복에 휩싸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설부른 수행자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진리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었단다. 내 어머니를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할 사람은 오직 어머니나 뿐이었다. 이제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의 은혜를 갚았다. 내 어머니는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셨다. 내가 살아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이제 마쳤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던 사리불은 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전에

늙고 병들어 임종 자리 찾아 고향에 온 사리불 브라만신 모시던 어머니에게 불법 전하고 열반

꾸만 떨렸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넬 기력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간신히 자신의 옛 방으로 들어간 뒤로 사리불 피를 토해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저 방편에 기대어 아들의 제자들이 들고나는 피가 담긴 그릇만을 바라보며 가슴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사리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년간 신이 바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브라만신임을 알고 그제야 사리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다녀간 신이 내가 모시는 브라만신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저 신보다 더 낫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한 명도 아닌 네 명의 브라만신들이 자기 부처님을 황금그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사상과 종교에 정통해 있었고 단단히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부처

들어 영원한 평안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어머니는 황급하게 찾아 들어가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들 사리불의 발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몰랐구나. 이제야 너를 만났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구나."

아들의 발을 부여잡은 어머니는 밤이 세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그 아쉬움이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늙고 병든 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울리는 마지막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에 버금가는 지혜의 상징 사리불 존자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가장 큰 은인인 어머니에게 지혜의 등불을 나눠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임군 사야도의 <부처님들의 위대한 생애>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격월간지 <호두마늘>(2005년 9,10월호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이미령(중국경원역권위원)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5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퍼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과목

-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쇄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 서예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1:00 ~ 15:00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6년 5월 10일 ~ 5월 27일 ●개강일시 : 2006년 6월 2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총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시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철은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총무원 부설 교양대학

범비오는곳 동해사에 기도 오세요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매년 양력 10월12일~11월20일 까지 밤,낮없이 부처님 사리탑 위에 범비가 내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해 있는곳.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성취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주지스님이 직접 지도 및 축원발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예약전화 : 033)672-2900

범비오는 곳 동해사 주지 해명 합장